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거주하게 된 이유에 관한 연구

Main Reasons for Choosing to Stay in a Paid Elderly Residential Facility

이인수*
Lee, In-Soo

Abstract

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to explore main reasons for staying in paid elderly residential care facilities among the residents. In this study, five males and seven females aged 65 to 82 were asked about main reasons for staying in the facilities. The answers of the qualitative interview were drawn as follows; first, some residents had suddenly decided to move into the facility due to critical life events such as bereavement, serious illness, or supporting problems. Second, some residents had taken a long period of considerations on whether staying home or in the facilities, because their health and family supports gradually diminished over the long life span. On the other hand, a few of them voluntarily chose to stay at the facilities, because they recognized supervised group activities, nutritionally well-planned meals, and health care as major inconveniences. In this study, suggestions were made as follows: first, guiding and settlement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for the residents of the sudden events, particularly at early stage of admission. Second, intensive nursing care units should be in separation from healthy independent groups, so that the residents are relieved from stressful contacts with extremely ill patients in the residential area.

Keywords : paid elderly residential care facilities, critical life events, guiding & settlement programs

I. 서 론

1990년에는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인구의 5% 정도였으나 2000년도에는 7%를 넘어서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한 고령화사회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미국 등 구미 선진국의 2-3배에 해당하여, 노령인구가 5%에서 7%로 되는데 걸린 기간이 선진국은 25-30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0년 이내에 불과하다(현외성 외, 2000). 이렇듯 빠른 고령화 추세에 따라 2022년에는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을 것이며 2032년에는 20% 이상이 되어, 바야흐로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다(통계청, 2000).

이렇듯 급속도로 진행되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부상하는 주거학의 주요과제는 노년층의 욕구와 취향에 맞는 주거공간을 개발하는 것이며, 노년기 주거

공간 개발에서 고려해야할 주요 사회현상은 가족내 노부모 부양여건이 악화되면서 노인전용 주거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다는 점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과거 우리나라의 노년기 주거생활을 지배한 전통적 사회 규범은 부모와 자식의 결속과 충효사상을 기반으로 노부모를 가정 내에서 부양해야한다는 믿음이었다(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3).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와 더불어 맞벌이 부부가 급증하는 최근에는 노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것은 자녀에게 부양부담을 초래하고 노인들의 활기찬 사생활을 위축시킬수도 있다는 견해가 부상하면서(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3), 노인 전용 주거시설에서 노후를 보내는 데 대한 긍정적 시각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돌보아 줄 자녀가 없고 자신의 독립적 생활능력도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생활보호자 시설보호에 해당하는 무료 양로원이나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것이 유

*한서대 노인복지학과 부교수, 가정학박사

일한 생의 방편이다. 하지만 돌보아 줄 자녀가 있어도 맞벌이를 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노부부를 모시기가 힘든 경우, 그리고 노부부나 독신으로 살면 건강관리에 대한 확신이 안 설 경우, 능력껏 비용을 지불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받으며 취향에 맞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노인주거시설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유료노인주거시설은 비교적 재정형편이 좋고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한 노인이 스스로 경비를 부담하는 원칙하에 입소하는 복지시설로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24개 시설에 2,100여명의 노인이 생활하고 있다(한국노인복지학회, 2002). 이러한 숫자는 4년 전 12개 시설에서 400여명이 생활하던 것에 비하면(현외성 외, 2000) 시설 수는 2배로 증가하고 입소 노인 수는 5배로 증가한 것으로,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며 노인전용 주거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수가 매년 50%이상 증가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유료 노인주거시설의 관리에 있어 가장 시급한 일 중 하나는 시설 내 관리프로그램을 노인들의 욕구에 맞게 합리적으로 구상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초보적인 단계는 노인들이 어떤 이유로 입소하며, 그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유료 노인주거시설에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직접면담에 의해 조사한 경험적 연구로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문제 1: 유료 노인주거시설에 입소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문제 2: 이러한 입소동기는 앞으로 유료 노인 주거시설 경영방향에 어떠한 과제를 제시하는가?

II. 선행연구 고찰

유료 노인주거시설에 산다는 것은 동·별거 측면에서 볼 때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와의 교류가 멀어진 특이한 상황을 택하는 과정인 동시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주거관리 측면에서 볼 때는 법과 지침에 따라 전문적으로 관리되는 공간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과정일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노인복지학회, 2002). 따라서 유료 노인시설에서의

생활이라는 명제에 대해 가정으로부터의 이탈과 전문적인 주거관리 측면에서 모두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가정으로부터의 이탈

유료 노인주거시설에서의 생활은 보편타당한 삶의 장소인 가정을 벗어나고 자녀와의 접촉이 소원(疎遠)해지는 길을 선택하는 중요한 결단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한다. 노후에 가정과 자녀 곁을 떠나 노인주택, 노인아파트, 노인촌락, 양로원, 혹은 다른 형태의 노인전용 주거시설에 입소하는 것은 사회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의미에서 해석된다. 첫째, 노인주거시설로의 입소는 결혼 후 수십년 동안 상호 정서적, 물질적 부양관계를 유지해오던 자녀로부터 그리고 사회의 기본 생활단위인 가구(household)로부터 벗어나는 일종의 반(反)사회규범적 이탈행위가 되는 것이다(Goldschneider, 1989). 둘째로는 오랫동안 생활해 오던 주거환경을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하는 적응행동이고, 셋째로는 자신의 의식주와 건강관리 등 생명유지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과 단체(노인주거시설 직원)의 결정에 의존하는 것이다(Pynoos & Regnier, 1993).

노후에 이르러 자녀와 가족을 떠나려는 욕구는 노인과 자녀의 ① 기본적 변인과 ②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인과관계적 흐름(pathway of causal relationship)에 의해 파생되는 함수관계로 정의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Casterline, 1993; Crimmins, 1990). 이러한 인과관계 함수에 있어 기본적 변인에는 노인과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농촌), 연령, 교육수준, 성별, 결혼상태가 포함되며 사회인구학적 변인에는 경제상태, 건강상태, 자녀별거선호도, 동거 가능한 자녀의 수를 포함한다. 위에 열거한 국내외 연구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녀와의 별거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관한 연구를 시행할 때 사용된 경제상태변수에는 주택소유여부와 주(主)수입원의 항목이 사용되었는데, 주택을 소유하거나 주된 수입원이 있는 노인일수록 자녀와 별거하며 노인단독이나 시설 생활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다. 건강상태와 관련된 변수에는 일상생활동작 장애수가 사용되었고 동거가능 자녀수에 대한 변수에는 생존해 있는 아들의 수와 총 자녀의 수가 사용되었다. 이에 대한 결과로는 일상생활동작 장애가 적을수록, 그리고 동거가능자녀

가 적을 수록 별거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들은 일상생활 동작의 장애가 크고 아들이나 기타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에게 의존하며 함께 살려는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동·별거를 결정하는 과정의 중간요인인 자녀와의 별거선호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역할에 의한 상호교환이론”(Atchley, 1988)이다. 역할에 의한 상호교환이론에서 본다면 노부모와 자녀는 함께 살면서 가사노동이나 정서적 부양제공 등의 상호 역할 분담을 교환하고, 제공과 보상이 평형을 이룰 때 최대한의 만족을 이루며 함께 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 교환의 균형이 허물어지면 세대간의 갈등이 시작되어 별거를 선호하는 심리적 반응의 주된 원인이 된다. 노부모와 자식간의 의사결정권, 재정권 등의 권한(power)과 이에 대한 순응(conformity)은 의존성(dependency)의 산물이며 덜 의존적인 측이 우위성을 지키고 의존적인 측은 순응하게 된다. 이러한 위계질서가 붕괴될 때 - 예를 들어 노부모가 자녀에게 재정지원, 가사노동분담, 손자녀 돌봄 등의 일방적인 혜택만을 제공하고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부양이나 일차적 보호(primary care)등의 상호교환이 없을 때 - 자녀와의 동거 만족도는 최저가 되고 따라서 별거하기를 희망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이 일상적인 가정을 떠나 노인들만의 유료 주거시설에 거주하게 되는 이유를 가정과 관련된 측면에서 추정하자면, 독립적인 생활능력 정도, 배우자와의 사별 여부, 자녀와의 갈등, 건강상태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자식의 수가 적거나, 신체가 건강하여 노인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경우, 또는 자녀와 함께 살지만 자식으로부터 부양을 제공받는 것 보다 가사노동이나 손자녀 돌봄에 의한 부담이 클 경우, 유료 노인주거시설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시설생활에 대한 선호

유료 노인주거시설에서의 생활은 가족관계 문제에서 파생되는 사회·심리적 원인외에, 시설생활 선호에 따른 자발적인 선택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한국 노인문제연구소(1993)에서 60세 이상 노인들 12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 노인들

중 약 40%는 여건이 허락한다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노인들만의 전용 주거시설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이 유료양로시설 입소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양로시설이야말로 노후에 직면하게 되는 일상생활의 보조 및 의료관리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해주는 이상적인 장소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33.7%가 응답). 두 번째로 큰 이유는 노인전용시설이 노인의 주거생활 유지에 편리하다고 믿기 때문이며(29.7%가 응답), 그 다음으로는 동료노인과의 사교(22.8%), 그리고 시설에 입주함으로써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13.8%)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전용시설이 주거생활 유지에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노인주거시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시설, 종교생활의 기회, 자원봉사자의 방문, 노인들끼리의 바둑대회 등이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문화·오락활동을 노인주거시설의 장점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자녀들과 함께 살면 위에 열거한 활동을 위해 특별히 외출을 해야하지만 노인시설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시설관리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된다는 믿음때문이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노인주거시설이 노인들에게 갖는 의미는, 자연환경의 영향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물리적 공간의 기능을 초월하여, 일상생활 및 의료관리, 그리고 노인들만의 동질성이 보장된 문화활동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자녀에게는 부양 부담을 덜어주는 복합적 기능의 공간이라는 것이 자명해진다.

선진국 연구를 고찰해 볼 때, 노인전용 주거시설을 선호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국내 연구에서 고찰되지 않은 사항은, 자신의 건강상태가 조금씩 변화할 때마다 그에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즉시 제공되고, 특히 체인점방식으로 운영되어 다른 주거시설이나 간호보호시설(nursing home)과의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서 건강관리가 중단 없이 지속된다는 점이다(AAHS, 2002). 또한 골프, 수영, 삼림욕, 보트놀이 등 여가나 취미생활을 다양하게 즐기기 위해 대규모 시설단지(communitiy)내에서 거주 구역을 자유롭게 옮김으로써 단조로움과 무료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시설거주의 주요 이유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리고 대규모 회사에 의해 체인점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요양기능이 강화된 시

설로 즉시 옮겨져 적절한 치료를 받다가 다시 건강이 회복되면 여가중심 시설로 복귀할 수 있고, 혹은 자신이 원하는 여가시설로부터 가깝거나 친한 친구가 있는 건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도 노인주거시설에 거주하려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AARP, 2002). 즉, 시설단지 내에서 필요에 따라 가까운 거리로 주거공간 이동이 자유로운 것이 시설거주 선택의 주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상에 고찰된 선행연구를 정리해보면, 노후에 유료 주거시설에 입소하는 것은 가족관계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불가피한 선택 외에, 노인주거시설에서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 및 일상생활관리, 동료 노인과의 어울림, 그리고 자녀를 불편하지 않게 하는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위 연구들은 미국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시설에 살아본 적이 없는 일반 가정 노인을 대상으로 미래 시설입소에 관한 가상(假想)을 조사한 것이기에 현재의 한국시설에는 참고하기 힘들다. 뿐만아니라 연구에 따라 건강이 좋을수록, 혹은 그 반대로 나빠질수록 자녀로부터 멀어지려는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일관된 시사점을 주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국내시설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시설에서 생활하게 된 일관성 있는 이유를 조사함으로써, 노인들의 욕구를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경남·경북·충남지역 5개 유료 노인주거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노인 중 면담에 자발적으로 응한 12명을 대상으로 2001년 9월 1일부터 2001년 11월 30일까지 직접 면담하여 얻은 자유로운 구술을 정리한 질적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 유료 양로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시설 3개와 사회복지법인 무료양로시설에서 병설 운영하는 유료 노인의 집 2개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남자노인 5명과 여자노인 7명으로, 일반적인 사항은 <표 1>과 같다.

본 조사대상이 된 2개 유료 노인의 집은 별도로

인가 받은 유료양로시설은 아니며, 경제능력이 있는 노인 5-10명이 무료시설내 원장 사택에 직원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비용을 내고 숙식제공과 기타 일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위의 5개 노인주거시설 중 4개는 읍(邑)지역에 있고 나머지 1개는 면(面)지역에 있으며 보증금 1000만~3000만원에 월 기본비용 30만~70만원을 지불하는 시설로, 현재 입소인원은 8명~27명의 소규모 시설이다. 5개 시설 모두 시설장 가족이 함께 거주하면서 300평 이상의 텃밭을 직원과 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다. 또한 시설장은 기독교 교회 장로로서 시설 안에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에는 입소 노인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과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주일예배를 보기 위해 방문하였다.

본 조사대상 시설의 월 기본비용은 한국의 노인복지지표 개발에서 제시된 중류층 소득수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입소인원은 전국노인복지시설 평균 입소인원인 52.4명(한국노인복지학회, 2002)에 훨씬 못 미치는 소규모였다. 또한 입소당시 모든 노인은 보건복지부(2000)에서 정한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계약에 따라 자식의 비용지불 보증하에 입소하였다.

일상생활 관리면에서 볼 때, 5개 시설 모두 식사와 청소 및 세탁을 시설에서 제공하며, 2개 시설은 시설장 가족이 간호사로서 직접 상주하고 나머지 시설은 외부 간호사가 자원봉사로 주 1-2회 방문하고 있었다. 또한 체조, 가벼운 운동, 취미교실등 복지기관에서 권장하는 일반적인 프로그램 외에 각 시설마

표 1. 조사대상 노인의 일반적인 사항

번호	성별	나이	교육수준	자녀	배우자
1	남	75	초등학교중퇴	2남	사별
2	여	66	고졸	1남 2녀	사별
3	여	78	고졸	1남 1녀	사별
4	여	80	고졸	1남 1녀	사별
5	남	70	초등학교 졸	2남	사별
6	남	76	고졸	1남	생존
7	여	82	무	1남 1녀	사별
8	여	86	중졸	2남 3녀	사별
9	남	82	중졸	1남 2녀	사별
10	남	76	대졸	1남	사별
11	여	72	고졸	무	평생독신
12	여	78	무	1남 1녀	생존

다 지역특성을 살린 독특한 프로그램(예: 옛날생활체험, 텃밭분양등)을 운영하고 있었다.<표 2>

2. 접근방법 및 질문내용

유료 노인주거시설은 무의탁 영세노인 거주시설이 아니므로 후원자들이 적고 자원봉사자의 방문도 적기 때문에, 시설이나 노인들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외부인의 시설 내 진입이 쉽지 않다. 본 연구를 위한 면담시도 과정에서, 입주노인들 대부분이 자신과 면식이 없거나 인간적인 교류가 없는 외부 사람들과는 자신의 신상에 관한 대화를 원하지 않았기에, 표준화된 긴 설문조사는 진행할 수가 없음을 알게되었다. 또한 사회성이 높고 활발하여 시설생활에 잘 적응하고 시설 내에서 어떤 위치가 있는 사람(예: 입주노인 자치회 회장)이 피면담자로 선정되면, 너무 긍정적이고 획일적인 답변(예: 시설운영과 시설장에 대한 자랑만을 일관되게 얘기함)을 하여 연구

의 조사목적과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연구주제가 될 수 있는 질문 내용을 조사자들에게 충분히 숙지시킨 후 자연스런 접근(예: 휴게실에서 함께 다과를 나누며 취미생활 얘기를 하는 도중 연구주제를 간간히 질문함)을 시도했으며 대화 내용은 나중에 표준어 문장으로 재정리했다.

면담요원은 가정관리학 분야에 재학중인 여자 대학원생 3명으로서, 상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연구목적, 면접의 기본 틀, 면접 방법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사전에 조사대상 시설을 수 차례 방문하여 노인들과 안면이 익숙해진 상태에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입소하게 된 주요 이유에 대해 고정된 설문지 양식 없이 자연스런 대화를 통해 질문하였다. 따라서 질문이 획일적으로 표준화된 문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대략 <귀하는 왜 이곳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까? 이곳에 들어오면 어떤 점이 제일 좋을 것 같아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라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취지의 질문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다른 주제(예: 날씨, 정치, 취미생활 등)에 관한 얘기를 나누면서 간헐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며, 답변내용은 휴대용 녹음기로 녹음했다가 다시 문법에 맞는 표준어 문장으로 재정리하였다.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은 질문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에 적극적으로 대답하기보다는 질문내용을 반복해서 자세히 쉽게 설명하거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는 오랜 과정을 통해 조금씩 답변하였는바, 이러한 질문 및 대화내용을 영역별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2. 조사대상시설의 특성

번호	운영 방식	직원 배치	기본 서비스	특정적인 프로그램
1	개인 운영	시설장 및 전직원常住	식사, 세탁, 청소, 주1회 간호서비스, 목욕보조, 병원동행	주1회 정기외출 및 대중목욕탕 동행, 수요예배 및 성경공부, 가족초청 시설내 주말파티, 지역인사초청 생신잔치
2	상동	상동	상동	계절별 운동회 및 소풍, 문화활동(장기자랑, 연극), 기관장 초청 초고령 생신잔치(85세, 90세 기념)
3	상동	상동	식사, 세탁, 청소, 필요시 방문 물리치료, 병원동행	주 2-3회 옛날생활 체험(떡, 한과 만들기, 가마솥에 밥하여 누룽지 만들기), 텃밭 개별 할당 영농에 의한 책임감 고취
4	사회복지법인 병설	시설장 가족 상주 / 타직원 출퇴근	식사, 세탁, 청소, 촉탁의사검진, 정기적인물리 치료, 상근간호서비스, 목욕서비스	자체노래방 운영, 자원봉사자 초청 주말 파티, 추수감사제 떡 잔치, 월1회 국립공원 소풍, 소규모 공동작업장 운영
5	상동	상동	주거단위에 취사시설이 있으며 식사 제공 혹은 스스로 취사중 선택, 세탁, 청소, 촉탁의사검진, 정기적인 물리치료, 상근간호서비스, 목욕서비스	수시로 해변에 가서 조개줍기, 야외에서 단체로 요리하기(보신탕, 매운탕등), 영농과 기러기 및 꿩 사육을 통한 부식 자체조달, 매주 일요일 도시에 있는 교회 방문 예배

표 3. 조사내용 요약

분석항목	예시	질문 및 대화내용
시설에 입소하게 된 결정적인 단서	배우자 사망, 심각한 부상이나 건강악화, 가정문제 발생	할머니(할아버님)은 혹시 어떤 피치못할 큰 사정이 갑자기 생겨서 이곳에 들어오게 되셨습니까?
입소무렵에 서서히 누적된 심리 및 일상생활 변화	고독과 무기력증가, 주위의 권유	할머니(할아버님)은 혹시 나이가 들면서 어떤 어려움이 점점 생겨서 이곳에 들어오시게 되었습니까?
시설생활에 대한 기대	규칙적인 식사, 직원의 보살핌, 건강관리	할머니(할아버님)은 혹시 이곳에 들어오시면 어떤 점이 좋을 것 같아서 들어오시게 되었습니까?

IV.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한사람이 상이한 두 가지 이유를 답변한 경우가 있었으므로 12명으로부터 총 15개의 입소이유가 정리되었다. 본 연구에서 진술된 유료 노인주거시설 주요 입소이유는 ① 생애 주요사건(critical life event)이 발생하면서 갑작스럽게 입소하는 경우, ② 노년기 일상적인 생활을 독립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능력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여러 가지 고통이 증가하면서 오랫동안 주위의 권유를 듣다가 입소하는 경우, ③ 보다 나은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감에 의해 노인 스스로 선택하여 입소하는 경우, 그리고 위 3가지 상황이 중복되게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입소하는 경우 등이다.

생애 주요 사건과 독립생활 능력 감소는 노인주거시설 외에는 더 이상 노년기 주거생활의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작용하는 바, ① 배우자 사망, ② 만성퇴행성 질환 발생, ③ 자녀의 부양기피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 기대감이란, 규칙적인 식사와 의료관리, 그리고 잘 짜여진 여가활동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다는 희망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소동기와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생애 주요 사건

1) 남편 사망 후 며느리의 부양회피와 친구의 권유
생애 주요 사건에 있어, 우선 여자노인의 경우,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 정서적으로 자녀들에게 크게 의지하는 상태가 되었지만 며느리들이 노골적으로 부양을 회피하여 매우 불안한 와중에 친구의 권유로 유료 노인주거시설에 들어오는 사례가 나타났다. 즉, 시설에 들어오게 된 데는 남편사망이라는 주요 사건이 발생한 후 며느리가 부양을 차일피일 미루어 불안한 상태에서 친구가 권하는 것이 중요한 동기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사 례]

남편사망 후 며느리들이 나를 모시는 문제를 놓고 노골적으로 갈등을 빚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며느리들이 말하길 시어머니와 같이 살면 세대차이가 많아 서로가 스트레스 받으니 당분간 혼자 살다가 더 늙

어서 기력이 약해지면 모시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들들은 주위 체면이 있는지 그래도 모셔야 하지 않냐고 하면서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다. 그러나 결국, 남편 죽고나자마자 내 거취문제로 자녀들이 대립하는 것이다. 이런 것 안보려고 자식하고 떨어져 혼자 살 생각도 해보았지만 남편 죽고 나니 혼자 지낸다는 게 무척 두려웠는데, 이것을 지켜본 친구가 권유하여 이곳을 방문해 보고 괜찮아서 들어와서 살게되었다... (78세 여자노인의 구술내용 재정리)

2) 아내사망 후 아무런 의욕 없이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어

남자노인 경우, 부인 사망 후 자녀들이 아버지 일상생활을 수발하는 것이 힘들어지자 아버지가 자녀에게 원하는 방안을 물어본 뒤, 자녀의 뜻을 존중하여 입소하게 된 사례가 고찰되고 있다. 즉, 배우자가 사망하여 삶의 의욕과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있는데 남자노인이라 식사나 기타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자식들이 부양할 여건도 안되었기에, 자녀들에게 부양 혹은 시설입소에 대한 의견을 물은 뒤, 자녀의 뜻을 받아들여 주거시설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 례]

올해 갑자기 아내가 사망했다. 왜 그렇게 빨리 갔는지 너무 억울하여 슬픔을 가누지 못하는 와중에 갑자기 밥먹고 잠자고 옷입고 외출하고 병원에 가는 일상생활이 모두 큰 문제로 다가왔다. 더구나 자녀들이 좁은 아파트에서 맞벌이하며 살고 있으니 나를 모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도 자식들이 나를 거절하지는 않고 하느라고 했지만 나로 인해 고생하는 것을 보는 것이 편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나를 계속 부양하는 것과 노인시설에 보내고 그 비용을 대는 것과 어느 것이 좋은 지를 물어보니 우선은 나의 식사문제와 건강수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계시는 것이 좋겠다고 하기에, 나도 그 뜻을 받아들였다... (75세 남자노인의 구술내용 재정리)

3) 부부의 질병을 계기로 자녀가 부모 중 한쪽을 선택하여

또한 남자노인의 경우, 부인이 평소 관절질환으로 자녀의 도움을 많이 받는 와중에 갑자기 자신마저 중풍에 걸리자 자녀의 힘으로는 양부모(兩父母)를 모두 부양하기가 힘들어졌다. 그래서 물리치료와 일상생활수발(예: 목욕, 식사수발 등)이 더 많이 필요한

아버님을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는 유료양로원에 입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부부의 질병을 계기로, 유료시설에서의 관리가 더욱 필요한 한쪽 분을 자녀들이 선택하여 입소시키는 것이 주요 입소동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사 례]

아내는 젊어서부터 행상과 농사일로 고생을 해 류머티스로 허리를 쓰지 못하고 부축해줘야만 움직이는데 나까지 갑자기 중풍 걸려서 한 집에 환자가 둘이 생겼다. 두 명의 병 수발을 든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 가족들이 회의하여 나만 여기로 데리고 왔다. 집에서는 물리치료 받으려면 누군가의 부축과 차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만 여기서는 주기적으로 물리치료가 방문하기에... (76세 남자노인의 구술내용 재정리)

4) 자식실종과 남편사망/종교생활 동경(복합적 동기)
80대 후반 여자노인의 경우, 70대 후반 고령에 이르러 60세 된 자식이 실종되고 자신의 남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생활여건이 극도로 나빠졌다. 이 여자노인의 경우, 복지기관의 재가봉사 서비스, 간병서비스, 친인척의 도움을 통한 생활도 가능했지만, 시설 안에 교회가 있어 설교나 성경공부 등 기독교 신앙생활을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유료양로원 생활을 동경해왔기에 양로원에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생애 주요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② 종교생활에 대한 동경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료양로원 입소를 결정하는 동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 례]

어느 날 딸이 행방불명되고 얼마 안가서는 내 남편까지 죽어서 혼자 살다가 나 스스로 이곳에 들어와 살고있는데, 79세에 이곳에 와서 7년이나 더 살았다. 딸이 없어지고 남편이 없어지니 너무 고통스러웠고, 다른 자식과 사는 것도 그 자식한테 고통스런 모습을 주는 것 같아 싫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종교만이 유일한 의존이 되었는데 이런 곳(유료양로원)에는 교회가 시설 안에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다고 하여 마음 편하게 종교에 의지하려고 들어오게 되었다... (86세 여자노인의 구술내용 재정리)

2. 노년기에 서서히 누적되는 어려움

1) 치료를 위해 이곳 저곳을 전전하다가 입소

본 연구에서는 앞서 고찰된 생애 주요사건 외에, 노년기에 차츰 증가하기 시작하는 고통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거나 도피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유료노인주거시설에 입소하는 사례가 고찰되고 있다. 차츰 증가하는 고통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예로서, 남자노인과 여자노인의 경우 중풍이나 당뇨때문에 병원이나 요양원, 재활치료 센터 등을 전전하다가 유료 노인주거시설이 일상생활과 질병관리에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들어 심사숙고한 끝에 입소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경우 요양원은 증세가 심한 질병을 가진 노인용 보호시설이라 의료서비스 비용이 자신의 증세에 비해 필요이상으로 비싸고, 병원이나 재활치료 센터는 비용도 많이 들고 질병치료 외 다른 생활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경증의 질병관리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일상생활 보호도 제공되는 유료 노인주거시설이 가장 적절한 주거공간이라는 판단이 중요한 입소동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 례 1: 관절통증의 효과적인 관리]

70대 후반부터 무릎 관절통증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병원을 다녔는데 무슨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물리치료만 받으러 일부러 며칠에 한번씩 다니는 것이 힘들어, 물리치료가 항상 있는 요양원에 들어갔다. 그런데 치료를 받아 많이 나아지니 항상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더구나 그곳은 치료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의료집이 많아 숙식비만의 기본비용도 워낙 비싸서 부담스러워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집에 있다 보니 가끔씩은 치료가 필요해 그때마다 병원에 가는데, 그러다 보니 귀찮고 돈도 아주 많이 들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물리치료도 가끔씩 받고 숙식비도 좀 싼 이곳에 왔다... (82세 남자노인의 구술내용 재정리)

[사 례 2: 당뇨관리에 필요한 식사조절과 운동]

당뇨가 악화되어 몸이 불편해져 이곳 저곳 옮기며 치료를 받았지만 돈만 낭비하고 치료도 되지 않았다. 당뇨 치료는 병원에 입원해봐야 특별한 치료보다는 식사 조절하고 약먹고 운동하는 것밖에 없는데 비용만 비싸게 나왔다. 이곳은(유료양로원) 나같은 사람을 배려해 식사를 알아서 잘 챙겨주고 간호사가 주기적으로 약 먹는 것도 돌봐주고 매일 적당한 운동도 함께 시켜주어 당뇨치료에 효과가 좋다. 그에 비해 비용은 싸기 때문에, 이곳이 나에게 가장 이상적인 곳이라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 (66세 여자노인의 구술내용 재정리)

2) 불편한 가족관계로부터의 도피

또한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만 불편한 가족관계로 인해 오랫동안 정서적 고통을 받은 여자노인에게는 유료 노인주거시설이 마지막 도피처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매우 충격적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첩을 들여 함께 오랫동안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노후에도 자식한테 첩과 함께 부양 받으며 지내는 정신적 고통이 계속적으로 누적되면서,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스스로 유료 노인주거시설에 입소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부모 부양 문제를 놓고 자식들이 갈등을 빚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본 후 그러한 불쾌한 상황으로부터의 도피처로 양로원을 선택한 사례도 고찰되고 있다.

[사례 1: 첩과 함께 아들에게 신세지기 싫어]

아들과 딸 하나씩 낳아 잘 살다가 갑자기 허리가 약해져서 집안 살림을 하기가 힘들어졌다. 그러자 남편이 젊은 여자를 데려와 함께 살며 그 여자가 애들을 키워주었다. 그렇게 수 십년을 살아왔고 아들도 그 여자를 작은어머니라 부르기에 이제 와서 그 여자를 나가라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두 늙은 어미가 아들한테 얹혀 살자니 그 미안함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동네 사람들 부끄러워 아들이 제대로 다니질 못했다. 그래서 더 늙고 집이 되는 내가 가겠다고 우겨서 양로원에 들어왔다... (80세 여자노인의 구술내용 재정리)

[사례 2: 자식의 간섭과 감시가 싫어]

남편이 사망하면서 우리 부부가 살던 집을 처분하여 아파트를 사서 아들을 주고 나도 그곳으로 가서 살림을 합쳤다. 아들내외가 맞벌이를 하니 하루종일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데 며느리는 노인이 가스나 물을 잘못 다루거나 문 열어 놓고 어디 나가나 걱정이 되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했다. 혹시 잠시 화장실에라도 있다가 전화를 못 받으면 아들한테 전화해서 일찍 퇴근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들로 아들부부의 싸움이 잦아보니 가족회의를 하여 형제들이 돌아가며 모시자고 하자 동기간에 사이가 나빠졌다. 나 때문에 자식들 싸우는 일들이 오래 지속되면서 그게 너무 마음 아파 결국은 이곳으로 도망 오게 되었다... (82세 여자노인의 구술내용 재정리)

3) 두려움과 고독의 지속/친구와의 어울림 동경 (복합적 동기)

고령 여자노인의 경우, 오래 전에 남편이 사망하

고 나서 혹은 결혼을 안한 상태에서 독신으로 생활해 오던 중, 특별한 사건은 없었지만 ① 언제든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 ② 맞벌이 자식부부가 밤늦게 들어올 때까지 홀로 지내며(결혼 한 적이 있는 노인 경우), 혹은 ③ 자식 없이 먼 친척과 이따금씩 왕래하고 살아오면서(평생독신 경우) 고독감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마침내 유료노인주거시설 입소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두려움과 고독이 지속되면서 평소 친구들이 자유롭게 찾아올 수 있는 시설생활을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도 중요한 입소동기인 것으로 나타나, 결국 ① 두려움과 고독의 지속, 그리고 ② 동료노인과의 사교에 대한 동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시설입소가 된 것으로 고찰된다.

[사례 1: 혼자 있는 것이 조금씩 두려워지면서]

특별히 어디가 아프거나 자식들과 문제가 있지는 않았다. 그런데 친구들이 하나둘 먼저 죽거나 중풍 걸리거나, 살짝 넘어지고도 크게 다쳐 고생하는 것을 보니 겁이 나서 집에 혼자 있기가 겁났다. 자식들하고 살아도 아들 며느리가 밤늦게 들어와 오랫동안 혼자 있으니 무서웠다. 그런데 이곳에 오면 일단은 누군가 옆에서 보살펴 준다는 것 자체가 마음 든든하고, 얘기하고 놀아줄 노인이 있다는 것이 부러워서 들어와 살게 되었다... (82세 여자노인의 구술내용 재정리)

[사례 2: 누군가와 함께 밥먹고 즐겁게 지내려고]

평생 홀로 살았다. 동생 집에도 살다가 친척 집에도 살다가 했는데 동생이건 친척이건 세월이 흐르니 모두 늙은이가 되어 더 이상 나를 보살필수가 없어 언젠가 부터 혼자 살게 되었다. 혼자 살다보니 한 해 한 해 나이 먹는 게 두려웠고 집에서는 혼자 음식 만드는 것도 힘들고 혼자 먹는게 외로워 거르기가 일쑤였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무료하고 여러 가지 근심걱정이 쌓여 지루했다. 그래서 밥 잘 해주고 누군가와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이런 곳(노인의 집)을 그리워하고 와야지 와야지 부르다가 들어왔다... (72세 여자노인의 구술내용 재정리)

3. 긍정적 기대감

1)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새로운 생활의 시작
 유료노인주거시설은 배우자 사망이나 가족문제와 같은 생애 주요 사건이 발생하여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선택하기도 하지만, 가정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긍

정적 측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특히 시설 직원들이 친절하기 때문에 자식에 버금가는 사랑을 느끼며, 다양한 계층 노인들과 어울리면서 이제까지 경험한 시간보다 더욱 유쾌하게 새로운 일상생활을 향유할 수 있다는 평소 믿음에 따라 자녀, 친척, 친구, 종교인등과의 충분한 의논을 거쳐 스스로 입소한 사례가 고찰되고 있다. 예를 들면 농촌노인이 도시출신 고학력 노인과 함께 살며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기대를 하거나, 혹은 비좁은 집에서 살던 노인이 시설에서 편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며 입소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례 1: 자식대신 젊은 직원이 곁에 있기에 안심]

옛말에 타향도 정들면 고향이고 남도 정붙이면 자식 같다고 했다. 나이 들면 뭐니뭐니해도 젊은 사람한테 의지해야 한다. 자식들이 나한테 하느라고 하지만 비좁은 집에서 불편 겪는 것 보며 마음 붙일 곳이 없었는데, 돈 내고 들어와서 사는 이런 곳은 우선 젊은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어머님(아버님) 하고 부르며 따뜻하게 보호해 준다는 것을 알고, 의지할 젊은 사람 있다는 것이 좋아서 들어오게 됐다... (78세 여자노인의 구술내용 재정리)

[사례 2: 새로운 삶의 시작]

나이를 먹을수록 아는 사람이 줄어들고 다람쥐 쳇바퀴 같이 항상 똑같은 나날을 보낸다. 그러다 보니 항상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얘기로 지루하게 살면서 하나 둘씩 떠나보낸다. 그런데 이런 곳에 오면 우선 새로운 사람들과 사귀며 이제까지 살아온 것하고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 새로운 삶의 시작에 대한 기대 때문에 내 발로 이곳에 들어왔다. 난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았지만 이곳에 오면 도회지에서 살던 분도 있고 선생님 하던 분도 있으니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그런 분들과 어떻게 어울리며 친구할 수 있었는가?... (76세 남자노인의 구술내용 재정리)

2) 책임 있는 생활지도와 건강관리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입소하면 시설직원의 책임 있는 관리규칙에 따라 규칙적인 식사와 의료관리,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프로그램에 의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다는 강한 기대감에 입소한 경우도 고찰되고 있어 매우 희망적이다. 이러한 긍정적 기대를 가지고 입소한 노인들은 규칙적인 식사, 건강

검진, 종교활동, 왕성한 교제를 통해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매우 안정된 노년기를 보내고 있다. 특히 도박이나 음주, 가무, 흡연 등 나쁜 습관을 고치게 되었음을 진술하게 되어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에 큰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소규모로 병설 운영하는 노인의 집 경우, 바로 인근에 법인 운영 대형 양로원과 요양원이 있어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쉽게 받는 것이 가장 큰 입소 동기이며 생활의 장점임이 나타나고 있다.

[사례 1: 자식은 부모한테 엄하게 못하지만 이곳은 엄격한 관리를 해준다기에]

자식은 나이 든 부모에게 먹고 자고 외출하는 것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강요 못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부모를 망치는 수도 있다. 나쁜 줄 뻔히 알면서도 담배 사다주고 늦잠 자든 끼니를 거르든 목욕을 안하든 간섭하지 않고, 아프다고 말하기 전에는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고 나가서 뭘하든 물어보지도 않는다. 한편으론 편하고 좋지만 불규칙한 생활을 하며 몸이 지저분해지고 나른해 지고 삶의 의욕이 점점 줄어들어 불안해졌다. 이곳에 오면 우선 잠자고 먹는 것이 규칙적이고 술·담배 못하게 하고, 예배 봐주고, 다함께 어디 놀러도 가고, 목욕하고, 빨래까지 해주는 것을 잘 알았기에 몸이 깨끗해지고 좀 규칙적으로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이곳에 왔다... (70세 남자노인의 구술내용 재정리)

[사례 2: 술과 담배를 끊으려]

솔직히 말하면 집에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나쁜 것을 끊는 길은 이곳에 오는 것뿐이었다. 난 알콜 중독에다가 담배가 골초인데, 이곳에 오면 우선은 그런거 같이 하자는 사람 없고 또 절대로 못하게 하니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곳에 왔다. 허구헌날 하던 그 나쁜 습관을 하루 아침에 버리고 성경공부에 몰두하니 다시 태어난 기분이다... (76세 남자노인의 구술내용 재정리)

[사례 3: 필요한 모든 전문가가 항상 곁에서 대기하기에]

어쩌다 필요한 것이라도 그게 항상 내 곁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크게 다르다. 이따금씩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지만, 누군가가 옆에서 언제든 도와줄 수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아픈 것도 훨씬 덜 하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다. 이곳(노인의 집)은 큰 요양원이 바로 옆에 있으니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그리고 앰블런스가 항상 대기중이고 심지어는 은행이나 우체국 가는 일도 그곳 사회

복지사님들이 도와준다. 그런 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누군가 옆에서 항상 책임 있게 도와주는 이곳이 집보다 더 낫다고 판단하여 들어오게 되었다... (75세 남자노인의 구술내용 재정리)

V. 논의 및 관리방안

본 연구는 경남·경북·전남지역의 유료 노인주거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노인 12명을 대상으로 입소동기에 관해 자유로운 구술을 도출한 질적 연구이다. 본 연구는 대도시가 아닌 읍·면지역에 위치한 중류층 시설 거주노인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와 해석은 대도시 수준의 편의시설 이용이 어렵고 대학생 자원봉사가 적은 지역사회 시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제한점이 따른다. 이러한 제한점에 따라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와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노인의 유료 노인주거시설 입소에는 지배적이며 특징적인 한 두가지 이유보다는 개개인에 따라 돌발적인 사고, 심리적 변화, 혹은 긍정적 기대감등 매우 다양한 상황이 혼합되어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시설관리에 있어 무료시설에 보편화된 일률적인 프로그램(예: 전체노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우울증 치료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몇몇 부류로 나누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구해야 할것이다.

둘째, 배우자 사망이나 자녀의 실종, 질병악화 등 갑작스런 사건으로 인해 계획 없이 갑자기 입소한

노인들을 위한 시설생활 적응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시설생활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갑작스럽게 입소한 노인들은 심한 절망감에서 비롯된 특유의 우울증 발생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이러한 우울은 일반적으로 가정과 격리된 시설생활에서 오는 시설생활증후군(syndrome of facility life)과도 유사한 측면이 많을 것이다.

시설생활증후군이란 가족내의 결속과 부양이 단절된 상태에서 양로원이나 장기요양원 등에서 수동적인 삶을 영위한다는 피해의식에서 비롯되는 의욕상실 상태를 말하며, 지능, 언어, 신진대사, 수면, 식욕 등에 장애를 동반한다(신미화, 1996; 신효식, 1993). 이와 같은 정신·신체기능의 장애는 특정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분노와 편집(偏執)이 없는 반면, 그러한 침체된 정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예: 취미생활 시작, 새로운 친구와의 친교 시도)이 없고 자학의 가능성이 높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신미화, 1996; 신효식, 1993). 이러한 시설생활증후군은 사람들과의 접촉이 어려운 변두리 지역에 위치한 시설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사회와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더욱 악화되어 <복합적 우울증후군>이라고도 표현되는(김승혜, 1992; 김현태, 1984; 이기순, 1994) 정신질환으로 진전될 소지가 많다.

따라서 돌이킬 수 없는 사건으로 갑자기 입소한 노인들에게는 고립과 허무감이 완화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직원이나 동료노인과의 친교활동이 잘 정착되도록 계도하는 특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표 4. 입소배경과 관리방안 요약

입소 배경	사 례	남녀공통 관리방안	남녀 차별화된 관리방안
주요 사건 발생으로 인한 갑작스런 입소	① 배우자 사망 후 가족의 부양 회피 ② 질병악화 ③ 자식실종	① 시설 적응 프로그램 개발 ② 활동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자와 1:1 결연 주선 ③ 가족생활관을 제공하고 다양한 계층 노인과의 통합 여가를 부분적으로 권장	가족관계 악화를 경험한 여성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서비스가 제공되는 가족공동생활관을 제공.
노년기 고통의 점진적인 증가에 따라 오랫동안 고려 끝에 입소	①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입소 ② 아내사망후 식사해결이 어려워 스스로 입소 ③ 불편한 가족관계로부터의 도피 ④ 두려움과 고독의 지속	① 예비입소제의 활용 ② 1-2주 동안 임시로 생활하며직원 및 노인과 친숙해 지는 기간을 주기적으로 가지게 함	배우자 사망후 질병악화와 더불어 우울한 정서를 오래 경험하는 여성 노인들에게 예비입소제를 더욱 오랜 기간 권장하며 점진적으로 시설에 익숙해지도록 유도함.
긍정적인 기대와 동경	① 다양한 노인들과의 만남과 종교생활 ②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향상	① 취향이나 사회적 배경, 생활 습관과 위배되는 노인과의 접촉은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② 다른 배경 노인과의 주거단위 분리식 거주	① 여성입소자에게는 젊은 직원의 친근한 대화를 더욱 중요시함. ② 과다음주나 흡연 경험 남성입소자에게는 엄격한 생활관리를 강조함.

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자와 동료노인 한 명씩을 지정하여 1:1 결연을 주 선하여, 주기적으로 말벗이나 일상생활 동반(예: 함께 시설 밖 식당이나 목욕탕이나 미용실에 동행)을 하도록 하는 등, 갑작스런 인간관계 상실이나 공포감에서 오는 사기저하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족과의 갈등이나 일상생활 능력 감소등 노년기 고통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오랜 기간동안 입소를 고려하는 노인들을 위해서는 단기간 예비입소, 혹은 입소 전 적응생활 프로그램을 시설에서 운영해야 할 것이다. 갑작스런 변화가 발생하여 노인주거시설이 불가피한 선택인 경우하고는 달리, 노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조금씩 가중되면서 노인시설 입소 여부를 오랫동안 망설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가정생활이 서서히 훼손되면서도 시설거주에 대한 두려움으로 명확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불안한 노년생활이 지속되는 것 역시 정서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인주거시설 거주여부를 고려하는 오랜 기간동안 시설에 몇 주씩 임시로 입소하여 생활하며 직원 및 다른 노인과 친숙해 지는 기간을 주기적으로 가진 뒤 입소하여 시설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다양한 사고와 규칙적인 건강관리 등 긍정적인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입소한 노인들에게는, 부득이한 사유로 입소한 노인들과의 원하지 않은 혼합을 예방하도록 차별화된 관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사회적 접촉이 대체적으로 노인의 사기와 정서를 높이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시설노인에 있어서는 모든 종류의 사회적 접촉이 일관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유료시설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목적으로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사생활의 유지를 시설입소의 주요 목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이나 사회적 배경, 생활습관과 위배되는 노인과의 과도한 접촉은 사기를 저하시키고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Pyneos & Regnier, 1993). 따라서 특별한 사연으로 인해 우울과 자학 가능성이 큰 노인과 긍정적 목표가 뚜렷한 노인들과의 주거단위(living unit)를 인접하지 않게 하는 이른바 분리식 거주(segregated residence) 방침이 적용되어

야 한다. 예를 들어 우울증이 심하고 외향성이 매우 적은 집단과 긍정적이며 진취적인 집단과 혼합하여 방을 배치하기보다는, 총별로 분리하거나 wing별로 분리하는 관리방안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두 가지 이상의 절박한 이유로 입소하거나 부부중 한사람만 입소한 노인을 위해 방문자-입소자 공동생활관이 노인주거시설내에 마련되어야 한다. 자녀와의 관계악화와 노년기 고독감 증가등 두 가지 이상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노인주거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은, 긍정적인 기대감과 진취적인 정서로 입소한 노인들에 비해 더욱 삶의 의욕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며, 자녀가 찾아와 위로해주거나 누군가 자신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랄 것이다. 특히 비용충당 능력의 한계 때문에 부부중 한사람만이 입소한 분들 경우 자녀가 배우자와 함께 가끔씩 찾아오길 크게 기대할 것이다. 이런 분들을 위해 시설내 공동생활관을 소규모라도 마련하여 자녀와 친인척, 혹은 결연을 맺은 자원봉사자가 방문하여 며칠씩 노인입소자와 함께 머무르며 가정처럼 함께 식사하고 지낼 수 있게 해준다면, 삶의 의욕과 사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한국의 유료노인주거시설에도 선진국형 방문자-입소자 공동생활관(AAHS, 2002)을 운영하도록 권장하는 복지정책이 마련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섯째, 다양한 사회·심리계층 노인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통합 여가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무연고 극빈 노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무료시설과는 달리, 유료시설은 긍정적인 기대감, 여가에 대한 욕구, 질병관리, 가족과의 극심한 갈등, 극도의 우울과 좌절감 등등 서로 상반된 긍정-부정적 측면이 다양하게 작용하여 입소했음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사회·심리적 배경 노인이 항상 혼합되어 생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거공간을 분리할 필요성이 앞서 제시되기는 했으나, 같은 직원이 모두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라운지나 정원이나 식당등 공동생활공간에서조차 항상 별도로 분리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같은 시설내에서 서로 융화되는 기회도 주기적으로 마련하고 입주자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 여가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시설내 비교적 건강한 노인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우울한 노인과 말벗이 되거나 간병

을 하던가, 학력이 높은 노인이 다른 노인에게 성경 공부나 한글교육 자원봉사를 하던가, 농촌출신 노인이 도시노인에게 텃밭 가꾸는 것을 지도하는 등, 다양한 계층 노인들이 합심하여 다함께 참여하는 자조(自助)활동 프로그램 개발이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끝으로 위에 제시한 관리방안의 핵심사항은 남녀별로 차등화 되어 권장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시설입소이유중 가족과의 문제나 노년기 우울증 증가, 젊은 직원의 보살핌 기대등은 여성노인에게서만 진술되며 사교활동과 규칙적인 생활관리 기대는 남성노인에게서만 진술되는등, 특정 항목에 대해 남녀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노인주거복지시설 관리는 남녀를 동일시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나마 차등화된 방안이 가미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여성노인들에게는 예비입소제를 더욱 오랜 기간 권장하여 서서히 시설에 익숙해지도록 유도하고 젊은 직원의 친근한 대화기회를 증대시키는 반면, 남성노인은 과다음주나 흡연에 대한 엄격한 생활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등, 중요 항목에 대해 남녀 차등화된 관리방안이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승혜(1992), 가정노인과 시설노인의 인식기능 및 우울증상에 관한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4-37.
2. 김현태(1984), 불우노인의 발생원인과 대책,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춘계호 36.
3. 보건복지부(2000), 경로당 활성화 사업추진단 보고서.
4. 신미화(1996), 노인의 고독감과 사회적 지지,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 신효식(1993), 노부모-성인자녀간의 결속도, 자아존중감,

- 심리적 손상간의 인과모형 탐색,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0-53.
6. 이기순(1994), 양로시설 거주노인을 위한 사회복지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5.
7. 통계청(2000). 장래인구추계. 서울: 통계청.
8.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93), 노인생활실태조사, 서울: 홍익재.
9. 한국노인복지학회(2002). <http://www.koreawa.or.kr/jboard2.superboard.com>(인터넷 홈페이지 학술자료중 시설분야 자료검색결과를 발췌함).
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 과제.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 보건복지포럼 제18호, 7-17.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 노인생활실태 분석및 정책 과제
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2). 한국의 노인복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14. 현외성 외(2000), 한국노인복지학 강론, 서울: 예경출판사.
15. American Association of Home and Services For the Aging(2002), Guidance for Choosing the Member Facility, <http://www.aahsa.org/public/links.htm>(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실)
16. American Association Retired Persons(2002), Guidebook of Planning for the Retirement, Guidance for Choosing the Member Facility,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실, <http://www.aarp.org/public/links.htm>
17. Atchley, R.(1988), Social Forces in Laterlife, Wadsworth Publishing Co., CA, U.S.A.
18. Casterline, J.(1993), "Difference in the Living Arrangement of the Elderly in Four Asian Countries" PSA Research Report Series, '91-No.10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Ann Arbor, MI, U.S.A.
19. Crimmins, E.(1990), Interaction and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Parents and Their Children, Research on Aging, 2(1), 3-35.
20. Goldschneider, C.(1989). "Living Arrangements among the Older Population: Constraints, Preferences, and Power", Ethnicity and the New Family Economy, Westview Publication Co., New York, U.S.A.
21. Pynoos, J. & Regnier, V.(1993), Housing the Aged, Elsevier Press, London.